



성균관대 파이널

2020 모의
-사회적 소수자-

1부. 문제

- 성균관대 2020 모의 1번 -

[1-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분량 제한 없음, 30점)

<보기>

친애하는 ○○○ 씨께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입학이 거절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귀하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학으로 이어진 자질을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보다 큰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귀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귀하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귀하가 요즘의 사회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들을 우대해온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학교 입학처

<제시문 1>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훌륭한 ‘롤 모델’(role model)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롤 모델을 통해 배우며, 탁월한 사람이 되려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빼어난 롤 모델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하는 나는 특히 소수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받는다. 나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은 나와 같은 소수 인종에 속하는 초등학교 교사 드브와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영웅시 하는 나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브와 선생님은 남다른 노력과 인내를 통해 빈곤과 차별의 벽을 뚫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물론 같은 인종이나 성에 속하는 롤 모델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모방하고 싶은 훌륭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간성은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성공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

은 소수자 집단에 속할수록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더욱 강렬한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제시문 2>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경쟁하고 있는 개인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인종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행위로 거론되곤 하는 예로서, 1940년대 말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재키 로빈슨 선수를 영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사례가 바로 탁월한 기량에 따라 선수를 영입한 경우다. 만일 로빈슨이 평범한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나 2할 타율에 그쳤다면 경멸을 당했을 것이며, 원래 속했던 마이너리그로 되돌려 보내졌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능력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할 때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 현재 사회의 관행을 두고 볼 때, 능력은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직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과학자가 가장 어려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군인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목해보라! 아무도 흑인 선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연맹에서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백인 선수들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이유로 쿼타를 할당하거나 백인 인구에 비례하여 선수를 기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시문 3>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한 대우는 지원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지위가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차이’에 속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에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지원했을 때 여성 지원자의 우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플로레스에 따르면, 성(性)은 그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뽑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직업에 필요한 기준과 후보 선발에 필요한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한다. 기업은 상업만이 전부인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통합에 대한 의무도 진다. 따라서 플로레스는 기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한 가지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사회정의는 집단들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입장은 일차적으로 보상적 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본질에 관한 주의 깊은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시문 4>

배상은 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A가 x와 관련하여 B에게 해를 가하면, B는 x와 관련하여 A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가 B의 차를 훔쳐서 파손하게 되면, A는 그 훔친 차에 대해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의 아들은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A가 죽거나 실종되면, B는 자신의 잃어버린 차에 대해 사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 과거에 저질러진 어떤 잘못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그런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자라면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의 부모가 나에게 비싼 성장 호르몬을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불행히도 이웃 사람이 그것을 훔쳐 키가 작은 마이클에게 주어 복용하게 함으로써 마이클이 40센티미터나 더 자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1미터 97센티미터의 키를 갖게 되었다. 마이클 조던은 이와 같은 행운이 없었더라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이클은 누군가의 부정의한 행위로 인해 농구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런 과거를 근거로 조던이 프로 농구선수로서 번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복용했어야 할 성장 호르몬을 훔친 이웃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조던이 친절하게도 시카고 불스 팀 경기의 무료관람 표를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나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

2부. 해설
[문제 1-3]

제시문 해설 [문제 1-3]

<p><보기> 친애하는 ○○○ 씨께</p> <p>①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입학이 거절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실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귀하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학으로 이어진 자질을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보다 큰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귀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귀하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③ 어쩌다 귀하가 요즘의 사회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④ 우리는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들을 우대해온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학교 입학처</p>	<p>① <보기> 불합격 통지문</p> <p>② 불합격 이유: 사회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입학 자격이 미달한다고는 볼 수 없음)</p> <p>④ 대학의 기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소수자 우대 기준</p> <p>↳ 쟁점: 소수자 우대 정책</p>
<p><제시문 1></p> <p>①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훌륭한 ‘롤 모델’(role model)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롤 모델을 통해 배우며, 탁월한 사람이 되려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빼어난 롤 모델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다. ② 소수자에 속하는 나는 특히 소수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받는다. 나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은 나와 같은 소수 인종에 속하는 초등학교 교사 드브와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영웅시 하는 나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브와 선생님은 남다른 노력과 인내를 통해 빈곤과 차별의 벽을 뚫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③ 물론 같은 인종이나 성에 속하는 롤 모델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모방하고 싶은 훌륭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간성은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성공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④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자 집단에 속할수록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더욱 강렬한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p>	<p>① 성공적인 삶의 조건: 롤 모델 선정을 통한 성취동기 자극</p> <p>② (주장)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강한 영감과 자극을 받음.</p> <p>③ (반론) 동질적인 소수자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롤 모델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p> <p>④ (재반론) 같은 부류의 롤 모델이 소수자의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침. (모든 사람이 모방하고 싶은 롤 모델보다 자신과 동일한 약조건에서 성공한 롤 모델의 영향력이 더 큼)</p> <p>↳ 소수자 우대 정책 옹호</p>

<p><제시문 2></p> <p>①탁월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경쟁하고 있는 개인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②인종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행위로 거론되곤 하는 예로서, 1940년대 말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재키 로빈슨 선수를 영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사례가 바로 탁월한 기량에 따라 선수를 영입한 경우다. 만일 로빈슨이 평범한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나 2할 타율에 그쳤다면 경멸을 당했을 것이며, 원래 속했던 마이너리그로 되돌려 보내졌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능력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③하지만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할 때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 현재 사회의 관행을 두고 볼 때, 능력은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직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과학자가 가장 어려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군인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목해보라! ④아무도 흑인 선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연맹에서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백인 선수들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이유로 쿼타를 할당하거나 백인 인구에 비례하여 선수를 기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p>	<p>①주장: 자원 분배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것, 즉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p> <p>②구체적 사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종차별을 극복한 야구 선수의 사례</p> <p>③사회적 관행: 개인의 능력, 기여도에 따라 사회 회소 자원이 배분됨.</p> <p>④반대로 쿼터(할당) 제도 등 소수자 우대 정책은 부당하고 비효율적</p> <p>↳소수자 우대 정책 비판</p>
<p><제시문 3></p> <p>①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한 대우는 지원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 ②이런 맥락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지위가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차이'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③예를 들어 어떤 직업에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지원했을 때 여성 지원자의 우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플로레스에 따르면, 성(性)은 그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뽑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직업에 필요한 기준과 후보 선발에 필요한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한다. ④기업은 상업만이 전부인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통합에 대한 의무도 진다. 따라서 플로레스는 기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한 가지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사회정의는 집단들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⑤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입장은 일차적으로 보상적 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본질에 관한 주의 깊은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p>	<p>①전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절한 (중요한) 차이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정당함.</p> <p>②쟁점: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가?</p> <p>③사례 분석: 기업의 여성 지원자 우대 정책→성(性)이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해 정당화될 수 있음.</p> <p>④사례 일반화: 사회정의 실현(사회 전체의 복지와 통합)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 회소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함.→⑤소수자 우대 정책은 보상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에 부합</p> <p>↳소수자 우대 정책 옹호</p> <p>*보상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한 정의로 구분된다. 일반적 정의는 도덕이나 윤리 등 일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로 나뉘는데, 분배적 정의는 권력, 명예, 재화 등</p>

	<p>사회 희소 자원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고, 보상적 정의는 개인들 간 상호 교섭의 조정과 관련된 원칙이다. 보상적 정의는 급부나 반대급부 간의 균형, 등가(等價)의 원칙 등을 특징으로 한다.</p>
<p><제시문 4></p> <p>① 배상은 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A가 x와 관련하여 B에게 해를 가하면, B는 x와 관련하여 A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가 B의 차를 훔쳐서 파손하게 되면, A는 그 훔친 차에 대해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하지만 A의 아들은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A가 죽거나 실종되면, B는 자신의 잃어버린 차에 대해 사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 과거에 저질러진 어떤 잘못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③ 유감스럽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그런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④ 내가 자라면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의 부모가 나에게 비싼 성장 호르몬을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불행히도 이웃 사람이 그것을 훔쳐 키가 작은 마이클에게 주어 복용하게 함으로써 마이클이 40센티미터나 더 자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1미터 97센티미터의 키를 갖게 되었다. 마이클 조던은 이와 같은 행운이 없었더라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이클은 누군가의 부정의한 행위로 인해 농구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런 과거를 근거로 조던이 프로 농구선수로서 번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복용했어야 할 성장 호르몬을 훔친 이웃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조던이 친절하게도 시카고 불스 팀 경기의 무료관람 표를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나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p>	<p>①② 배상 책임의 주체: 가해자에 한정되며 가해자의 가족이나 사회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p> <p>③ 피해 구제 방법: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최선</p> <p>④ 사례 분석: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요구할 도덕적 권리 없음.</p> <p>→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입장 추론: 소수자 우대 정책은 소수자가 받은 피해(차별이나 불이익)를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적절하지 않음.</p> <p>↳ 소수자 우대 정책 비판</p>

■ 매트릭스 분석 및 예시답안 [문제 1]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분량 제한 없음, 30점)

요구사항	전제: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①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 ② 각 입장을 요약
논제유형	분류 요약

쟁점	<보기> 속의 정책: 소수자 우대 정책			
	대학의 인재 선발 기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 이 과정에서 소수자가 아닌 지원자를 입학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탈락시킴			
입장	소수자 우대 정책 옹호		소수자 우대 정책 비판	
	소수자 우대 정책의 긍정적 효과 강조		소수자 우대 정책의 부정적 효과 강조	
논지	<제시문 1> 성공적인 삶의 조건: 롤 모델 선정을 통한 성취동기 자극 주장: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강한 영감과 자극을 받음. 반론: 동질적인 소수자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롤 모델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재반론: 같은 부류의 롤 모델이 소수자의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침.(모든 사람이 모방하고 싶은 롤 모델보다 자신과 동일한 약조건에서 성공한 롤 모델의 영향력이 더 큼)	<제시문 3> 전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절한(중요한) 차이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정당함. 쟁점: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 분석: 기업의 여성 지원자 우대 정책 →성(性)이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해 정당화될 수 있음. 사례 일반화: 사회정의 실현(사회 전체의 복지와의 통합)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 희소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함.→소수자 우대 정책은 보상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에 부합	<제시문 2> 주장: 자원 분배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것, 즉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 구체적 사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종차별을 극복한 야구 선수의 사례 사회적 관행: 개인의 능력, 기여도에 따라 사회 희소 자원이 배분됨. 반대로 쿼터(할당) 제도 등 소수자 우대 정책은 부당하고 비효율적	<제시문 4> 배상 책임의 주체: 가해자에 한정되며 가해자의 가족이나 사회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제시문 3>의 배분적 정의 전면 비판) 피해 구제 방법: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최선 사례 분석: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요구할 도덕적 권리 없음.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입장 추론: 소수자 우대 정책은 소수자가 받은 피해(차별이나 불이익)를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입장 내 차이	<1>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3>은 개인들 간의 보상적 정의에서 벗어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는 희소 자원의 분배 문제를 다루는 반면, <4>는 피해의 구제 문제를 다룬다.

[매트릭스 예시답안]

<보기>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제시문 1, 3>은 긍정적 입장을, <제시문 2, 4>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1, 3>은 소수자 우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제시문 1>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이 소수자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수자의 경우 모든 사람이 모방하고 싶은 롤 모델보다 자신과 동일한 약조건에서 성공한 롤 모델로부터 더 큰 영감과 자극을 얻는다는 것이다. <제시문 1>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효과를 얘기한다면, <제시문 3>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시문 3>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사회 희소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들 간의 보상적 정의가 아닌 사회의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 2,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제시문 2>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반대로 쿼터(할당) 제도 등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다. <제시문 2>가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를 다룬다면, <제시문 4>는 피해의 구제 문제를 다룬다. <제시문 4>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사회에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적 노력을 통해 불이익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소수자가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학 측 예시답안] (미발표)

■ 대학 측 채점기준[문제 1]**< 등급 >**

- A :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하여 잘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